

한빛원전 바닷물 사용 연장 여부 '초미의 관심'

허가 기간 내일 만료...영광군 반려 가능성 속 결정 주목

27년 연장 요청한 한수원, 집행 정지 가치분신청 등 검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한빛원전 가동을 위한 영광군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허가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영광군 안팎에서는 지역민들의 한빛원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는 점에서 반려 통보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영광군이 만료 시기(22일)를 앞두고 온·배수 배출 등을 고려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바닷물 확보가 힘들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한빛(영광)

원전 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반려나 불허 처분 뒤 즉시 집행정지 등의 가치분 신청을 법원에 내는 단계까지 검토 중이다.

20일 영광군에 따르면 한수원이 27년간 원전 가동에 필요한 바닷물을 사용하게 해 달라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 신청서를 최근 접수한 것과 관련, 허가 만료일(22일)에 맞춰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수원은 애초 원전 가동에 필요하며 오는 2042년 7월30일까지 바닷물을 사용할 권리를 달라는 취지로 영광군에 허가 연장 신청을 했었다.

영광군은 원전 안전·신뢰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과 국가 핵심 기간 산업의 중요성 등을 감안, 신중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으로 고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광 안팎에서는 그러나 한수원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 신청 과정에서 제기됐던 미비점 등을 보완하지도 않은 채 이뤄진 '막무가내식' 행태 및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감이 팽배해진 점 등을 감안, 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허가신청서를 반려하거나 4~5년으로 기간을 대폭 줄인 뒤 지역민들의 요구사항

을 조건으로 불허 허가를 내리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광지역 주민·환경·사회·농민·직능단체 등 153개 단체로 이뤄진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은 "영광군이 한수원에 바닷물 사용 허가를 주는 것은 지역민의 안전과 이익을 해친다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한다"는 입장을 펼쳐왔다. 재가동 4일 만에 불시 정지한 한빛원전 3호기를 예로 들며 안전성 확보를 내세우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도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영광군민을 생각하면 반려 처분을 못할 것도 없다"고 말하며 반려 처분 가능성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한빛원전 측도 불리한 지역 분위 등을 고려한 듯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한빛원전 측은 영광군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결정에 대비, 해당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치분 신청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검토에 들어갔다. 요구 기간(27년)보다 짧은 기간을 허가받을 경우 다시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한수원은 ▲온배수에 의한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양 생태계 변화 및 어업 피해 예방대책 ▲방류제로 인한 원전 주변 핵연료 변화에 대한 대책 ▲허가 조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등을 보완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와 같은 기간의 점·사용 허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 지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영광=이종윤기자 jylee@kwangju.co.kr

돈 받고 명의 대여 변호사 항소심 벌금형...자격 유지

이른바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대가로 거액을 챙겨 재판에 넘겨져 자격 박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이종재)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초범인 점과 사무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산재 환자들을 대신해 장해급여 청구를 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박모(4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2개월로 형을 줄여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김 변호사는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자격이 정지된다. /김지우기자 dok2000@

광주소방본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동행해 보니

대낮 한산한 도로에서도 소방차에 양보 안해 불법 주차에 막히고 되레 끼어드는 차량도

한산한 도로지만 소방차를 위해 길을 터주는 운전자는 드물었다.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20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과 함께 진행된 '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 참여훈련을 일제히 실시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 낮 시간대인 탓에 도로상황이 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렌 소리에 맞춰 승용차 운전자들이 길을 비켜주는 모습의 기적(?)은 연출되지 않았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 북부소방서에서 출발한 소방차는 훈련 상황을 감안해 시속 60km의 속도로 달렸지만, 말바우 시장 앞에선 10km까지 속도를 줄여야 했다. 무단횡단을 하던 시민이 소방차가 달려오는 모습을 뵈며 보고서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방시장 앞 편도 2차선 도로는 불법 주차차 된 차들이 오른쪽 차선을 모두 점거한 상태로, 소방차 앞을 달리던 차들은 차선을 비워주고 싶어도 차를 멈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더욱이 갓길에 정차돼 있던 한 1t 트럭은 소방차가 뒤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달려왔지만, 출발을 위해 소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오치동 한 교차로에선 직진신호를 받고 달리던 소방차 앞을 신호위반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다.

이날, 북부소방서 길 터주기 훈련은 약 5km 구간이었으나 차를 피해주는 차량은 3대에 불과했고, 도착시간도 무려 14분이 소요됐다.

다른 소방서들도 마찬가지로, 소방차를 위해 길을 비켜준 차량은 서부소방서가 2대(훈련구간 3km), 남부소방서 4대(6km), 광산소방서 4대(6km), 동부소방서 5대(4.5km) 등 도로가 한산했던 것에 비하면 저조했다.

광주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엔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길을 터주는 운전자들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양해 운전자와 불법 주차차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



재활용 의류 모아 이웃돕기 20일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고 하천부지에서 열린 북구 부녀회 '재활용 의류 모으기 경진대회'에서 부녀회원들이 동별로 수집한 의류의 무게를 재고 있다. 수집된 의류의 판매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 등에 쓰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캐디 때린 60대 수사

여수의 한 골프장에서 고객이 골프채로 캐디(경기보조원)를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여·30)씨 등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여수시 국동 A골프장에서 손님 김모(62)씨로부터 골프채로 수차례 맞았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의 피해자 조사 결과 김씨가 자신 주변에 공이 떨어지지 공을 날린 티의 캐디 L씨에게 화를 내며 골프채로 허리, 종아리 등을 수차례 때렸고, 이를 말리던 다른 캐디도 머리를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불법영업 신고 협박 물품 강매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지인을 찾아가 때리는가 하면 불법영업을 빌미로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물품을 강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청 신세.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강모(42)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일당 3명씩 함께 광주 시내 성인오락실 등 업소 6곳을 주기적으로 돌며 "불법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만원짜리 과일을 11만원에 강매하는 등 150여차례에 걸쳐 930만원의 돈을 얻은 혐의.

○~전과 62범인 강씨는 또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알린 A(28)씨를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는 "불법 업소를 찾아가 빵과 과일을 비싸게 팔면 붙잡히지 않을 줄 알았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할 보건교사 태부족

보유 학교 63% 불과

심폐소생술의 학교 교육이 의무화됐으나 인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로, 심장정지 발생 후 4~5분 안에 시행하면 사망률이 현저히 낮아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일 이런 내용의

'심폐소생술 교육 현황 및 개선 과제'(조인식·김주경)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2014년부터 학생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전담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하다.

전국 1만1614개 학교 중에서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는 63.3%에 불과하다.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는 체육(전담)교사나 학

교운동부 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다른 교과목 교사나 외부 전문 강사가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실정이다. 심폐소생술 교구도 부족하다. 심폐소생술은 이론교육과 함께 위급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실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습용 인형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용 인형을 보유한 학교는 초등학교 73.8%, 중학교는 46.1%, 고등학교는 58.3% 정도에 머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축 원룸 매매

관심 끌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신축 4층건물)
월세 인기좋은 / 임대 걱정없음

룸12개, 올대리식시공, 신축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 주택 1개, 옥탑)
옥상에 피라사 설치

월수익 500만
매매가 6억 7천

추천 물건

- ① 전대정문 2분 룸20개 (1층상가2칸)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북구 용봉지구 상대 2분 코너 룸 21개 (상가, 주택) 엘리베이터 있음. 월세 800 매매가 11억
- ③ 북구 두암동 동신대 원룸 19개 (상가, 4층 주택) 월세 850 매매가 11억 5천
- ④ 수완지구 상가매매 (4층중 3층) 월수익 150만 매매가 2억5천

010-6832-9700
010-6834-4800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47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① 광산 정덕동 4층중 3층 62평 수원롯데마트대리점 매매가 2억5천	⑤ 수완지구 모아골11평 4층중 3층 85평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매가 3억5천
② 서구 상무지구 정연 3층 상가 30평 (보 1천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⑥ 남구 백운동 대흥1차 APT, 24평 보 1천 월 60만 가격저렴 매매가 1억1천500만
③ 서구 쌍촌동 원룸 11평 온천역 3분 보 200만 월 25만 매매가 3천500만	⑦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23평보 5만 월 50만 매매가 9000만
④ 서구 상무지구 5층건물 월세 1천억 매매가 20억	⑧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13평 보 300만 월 30만 매매가 5천만

010-6670-9800
010-6834-4800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5층>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 ☑ 상무지구 중심 금융가 도로 현대자동차 뒷편
- ☑ 이면도로 코너
- ☑ 엘리베이터 완비, 무료주차4대
- ☑ 주변 주차시설 300대 완비됨

☐ 즉시입주가능, 내부시설완비
☐ 학원적합, 보험사무실 적합

적극추천 ★

임대가 보3,000만
월 140만

062-527-76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이제 경매는 대중화 시대
입찰부터 매매 임대까지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 ①서구 금호동 7층상가 (295㎡) 감정가 6억5천/최저가2억9천(유용상가)
- ②북구 보훈동 민성빌딩(중층) (588㎡, 217,261.18㎡) 감정가 14억/최저가9억6천(총상당)
- ③북구 중흥동 써너스컨대(10층중1층 (20,032㎡, 2,146,96㎡) 감정가12억3천/최저가9억3천(상가)

수익성상가(근린주택)

- ①광산구 소촌동 (토400㎡, 건284㎡)감정가3억7천/최저가13억(세차정카벤더)
- ②서구 양동 (180.5㎡, 건259.2㎡)감정가13억3천/최저가12억3천(2층건물/1층상, 2층주택)
- ③목포 산정동 (토63.75㎡, 건199.2㎡) 감정가1억3천/최저가17천100만 (3층건물/1층점포, 2~3층주택)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①나주송학동(복합상가)건물(예산장) (E8474㎡, 건11735㎡)감정가152억/최저가68억
- ②전주완산구호지동 (토502,453㎡, 2,689,083㎡)감정가125억/최저가13억(3층상가건물)
- ③광양시중동 (토767㎡, 건3276.78㎡) 감정가126억/최저가121억(6층건물)

공장 / 주유소 / 모텔 / 특수물건

- ①광산구하남/공장 (토174.3㎡, 건2635.72㎡) 감정가14억/최저가6억5천
- ②북구 중흥동(토300㎡, 건1235.92㎡)감정가11억/최저가6억2천 (6층모텔)
- ③북구 월출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1458.9㎡) 감정가10억/최저가10억
- ④광산구 정목동/공장 (토지매각제외, 건8114.46㎡) 감정가36억/최저가29억
- ⑤광산구 월계동(무인텔 (토1522.5㎡, 건1999.65㎡) 감정가34억/최저가34억

바닷가 편성 경매추천 물건

- ⑥경남 고성시회화면 (토13665㎡, 건667.16㎡) 감정가43억/최저가8억 (편성바다근처 건물깨끗 시설좋은)특수물건

★ 경매학원에서 배우실 분 환영
★ 경매 직원구함 (남, 여)
★ 경매 컨설팅하실분 (상무지구, 수완동, 법원)

010-6670-9800 / 062-226-4600

경매교육(매주 초 개강)

- 1) 경매교육개강(수완지구 오픈) (엔피엘+토지보상 경매)
- 2) 경매실전교육(기본+실전위주)

- ① 오전반
- ② 오후반

(매주 초 개강)

경매교육 받으면서 수익창출 가능

010-7384-7800
062-527-7600